미국 마감 시황

2008.11.11

이승준 02) 2009-7088
leesj@leading.co.kr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로 인하여 상승 출발했던 미국 증시는 미국의 2대 전자제품 유통 회사인 서킷시티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등 기업들의 파산 우려와 실적 악화가 부가되며 하락 마감.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73.27p(0.82%) 하락한 8,870.54에 마감. GM이 22.9% 급락하며 하락세를 주도. 알코아는 5.3% 상승. S&P500 지수는 11.78p(1.27%) 내린 919.1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66p(1.86%)내린 1,616.74로 마감.

중국의 4조위안(5,86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발표로 유럽과 아시아 증시가 상승하며 미국 증시도 상승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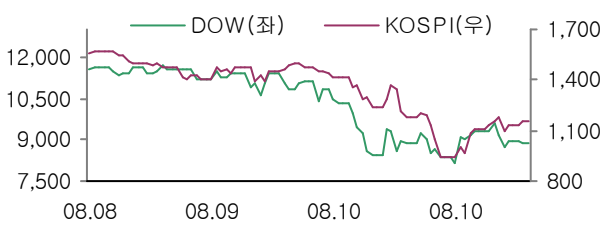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AIG의 대출규모를 85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축소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리보 3.0%로 낮추고 대출 기간을 5년으로 연장. 재무부는 400억달러를 투입하여 AIG 우선주를 매입하고 뉴욕연방은행은 525억달러를 대출해 주기로 약속하며 증시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

하지만 서킷시티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버지니아주 파산법원에 34억달러의 자산과 23억2천만달러의 채무를 신고하며 파산보호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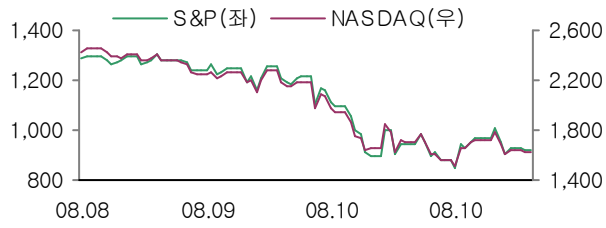
도이치뱅크는 GM이 미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며 GM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도'로 하향조정. 소비위축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우려가 증폭되며 이날 미 증시는 하락 마감.

미국 시장 주요 지표(pt, %)

지수	종가	1일	5일	10일	1개월	3개월	12개월
DOW(좌)	8,870.54	-0.82	-4.82	8.50	4.96	-24.41	-31.99
S&P(좌)	919.21	-1.27	-4.87	8.28	2.22	-29.09	-36.77
NASDAQ(우)	1,616.74	-1.86	-6.35	7.36	-1.99	-33.03	-38.48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